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1월 22일(주일) 제1320호



사진은 지난해 순장영성수련회.

카이퍼 서거 백주년 기념 학술포럼

11월 26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

올해 11월은 기독교 세계관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칼뱅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 ~ 1920) 서거 100주년이다. 카이퍼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행사가 열린다. 기독교학술원과 온누리교회가 공동으로 11월 26일(목)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그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대면(30%) 및 온라인(ZOOM)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이퍼 서거 백주년 기념 학술포럼'에서는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가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오늘날 의의'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인사말과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총장)의 주례설교도 이어진다. 이어 '교회와 국가관계 관점'에 대해 박태현 교수(총신대)와 윤철호 교수(장신대), '사회윤리적 관점'에 대해 최용준 교수(한동대)와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교육 관점'에 대해서는 리처드 마오 교수(미국 풀러신학대 전 총장)와 김도일 교수(장신대)가 발표와 논찬을 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전등록해야 한다. 기독교학술원 전화번호(010-5179-7548)로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문자메시지 보내면 된다. 50명 선착순 모집한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 순장들을 위한 축제!

11월 28일 '2020 순장블레싱' 개최
오전 10시 10분부터 각 캠퍼스 본당 및 온라인

온누리교회 순장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축제가 막 오른다. '2020 순장블레싱'이 11월 28일(토) 오전 10시 10분부터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과 온라인(유튜브, 줌)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접속 링크는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2020 순장블레싱에서는 온누리교회 모든 순장들이 주인공이다. 올 한 해 수고한 순장들을 격려하고, 영적 리더십으로 다시 세움으로써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축복의 장이 펼쳐진다.

2020 순장블레싱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다. 1부 토요일예배를 함께 드리고, 10시 10분부터 2부 순장블레싱 특별프로그램이 이어진다. 2부 특별프로그램은 오프닝 영상, 간증, 스킷드라마, 순장 고백 및 담임목사 화답, 선물 전달, 축복 및 합심기도 등이다.

오프닝 영상에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한 순장들의 노고와 애로사항, 사역 모습 등을 상영한다. 스킷드라마에서는 순장들과 교역자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2020 순장블레싱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

오창화 순장(한강공동체)은 "순장이 순원

들을 바로 섬길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다짐하는 순장블레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경 순장(여호수아청년부)은 "이번 순장블레싱에서 모든 순장님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문정식 총무(부천 온누리교회)는 "순장블레싱을 계기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신현승 장로(동대문중앙공동체)는 "순장님들은 작은 목자로,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순장님들의 수고에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KNOCK노크' 구독자 10만 돌파

11월 29일까지 감사 이벤트

CGNTV 유튜브 채널 'KNOCK노크'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CGNTV 유튜브 채널 'KNOCK노크'는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의 마음을 노크하는 크리스천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 미니휴먼다큐, 계도왕, 붓소렌집, 퍼즈, 미니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수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CGNTV는 'KNOCK노크' 구독자 10만 명 돌파기념으로 구독자 감사이벤트를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참가방법은 CGNTV 유튜브 채널 'KNOCK노크'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

무슬림 위한 '스타트리 협동조합' 후원

일반사역팀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이 한창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에서는 무슬림 직업교육을 위해 설립된 '스타트리 협동조합'에 빔프로젝터와 집기 등을 후원할 예

정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 1기 펀딩에는 홈페이지(nehemiahprojectimweb.me/startree)와 계좌이체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타트리 협동조합

은 온누리M미션에서 발족한 단체이다. 무슬림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 비즈니스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느헤미안 프로젝트는 사회 곳곳에 무너진 성벽을 찾아 다시 세우도록 돕는 프로젝트다(관련기사 13면).

문의: 010-6408-9851

계좌: (하나) 573-910018-74305

온누리교회 일반사역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신학과 철학은 존재의 근본과 기원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신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 논의하면서 과학적 방법론이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발견한 바 있다. 진화론은 ‘신이 존재

하지 않음’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요, 창조론은 ‘신이 존재함’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이 되는 형이상학적 토대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모든 지식은 어떤 믿음을 근거로 발전한다.

현대의 과학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에게 의해 학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프란시스 쉐퍼는 “세상이 합리적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관찰자로서 자신과 관찰의 대상 사이에 연관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기반이 없었다면 현대 서양과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모든 것의 기원에 다양하고 무한히 많은 우연을 가정하고 있다. 우연한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고, 지금과 같이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의 탄생, 유기물로부터 단세포 생명체의 탄생,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다세포 생명체의 탄생, 그리고 아주 다양한 생명체로의 종 분

화 같은 모든 과정이 무수한 우연의 연속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과정들이 모두 우연에 의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잡동사니로 가득한 고물상이 폭발해서 우연히 우주왕복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틈새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다. 고대에는 일식, 번개, 우박, 무지개 같은 자연의 현상도 신의 섭리로 해석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에 신은 계속 밀려나서 지속적으로 후퇴하였고, 과학이 밝히지 못한 미지의 틈새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디트리히 본회퍼는 “우리는 틈새가 아니라 천지만물의 모든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며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재이심을 주장한다. 틈새의 신 개념은 자연주의, 유물론자들이 가진 인식론의 근본적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많은 신학자, 목회자, 철학자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대에는 모든 지적 활동과 그 활동의 방법론이 철학이라는 학문의 이름 아래 행해졌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자연과 초자연에 대해 통합적으로 공부하였다. 그런 학문 활동을 위한 논리, 언어, 심리와 같은 방법론도 포함된다. 근대에 와서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과 초자연에 대한 지식의 양적 증가와 연구 방법의 분화로

인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문의 분화가 일어났다.

철학자 J. P. 모어랜드는 두 가지 이유로 과학적 주장을 위해서는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철학의 자율성이다. 철학이 공부해 오던 자연과 초자연에서 과학이 물질과 자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초자연과 연관되는 부분은 철학만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과학의 간섭 없이 철학이 자율성을 보일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의식과 영혼의 본성은 무엇이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과학적 방법론 밖의 영역이고, 과학은 탐구를 포기하였지만, 철학은 연구를 지속해 오던 영역이다. “의식과 영혼은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은 온전한 철학의 영역이지만 과학자들이 대답을 시도하고 있다. “진화론이 과학인가? 혹은 지적설계가 과학인가?” 같은 과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 이들 질문은 “순수한 자연주의적 방법론만을 사용해야 과학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귀결되는데, 과학 철학자나 역사학자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학이 과학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철학과 과학이 함께 탐구하는 영역에서는 철학의 권위가 더 높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답을 제시한다고 할 때, 과학이 자신의 원리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철학이 자신의 원리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만큼 강한 경우가 드물다. 즉 과학과 철학의 답이 서로

충돌한다면 철학의 권위가 대부분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 ‘관찰될 수 없는 이론적 대상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 같은 것이 그 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할 때 ‘비경계’ 모형을 전개하여 허수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우주론적 시작점을 회피한다. 이것은 스스로 도구주의자이며 반실재론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구주의, 반실재론 이런 개념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들이라 기초이론을 철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J. P. 모어랜드는 전통적 기독교를 방어하는 논리 체계를 위해 철학자, 신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작업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학자의 집단은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지식의 한계 속에서 공격적 무신론의 집중포화에 절망하고 있다. 세속적 무신론의 실체는 거짓을 근거로 거짓 이념을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있다. 이에 대항할 영적 전쟁에 힘을 합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어서서 뭉쳐야 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4-5).

묵상: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위해 힘을 합칠 때 내가 참여할 분야와 준비된 무기는 무엇인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가정에 견고한 성(城)을 쌓는 성(性)

두란노아버지학교와 함께 해외 아웃리치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아웃리치에 참여했던 성도 한 분이 “아내만 보면 속이 터지고 어떤 때는 정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아내가 늘 체육복만 입고 산다는 것이었다. 체육복이 생활복, 잠옷, 심지어는 외출복이 되기도 한다면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느 날은 남편이 아주 비싸고 예쁜 잠옷을 사다주기도 했는데 아내는 남편이 사다 준 잠옷은 옷장에 처박아두고 여전히 체육복을 입고 잔다고 했다. 외적으로 전혀 자극이 없는 아내를 보며 서운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난다고 했다.

남성들은 시각을 통해 성적인 자극을 쉽게 받는다. 그래서 남성을 시각지향적인 존재라고 정의 내리기도 한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그러나 결혼 이후 연애 때 보았던 아내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실망하고 종종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내들은 자녀양육과 집안 살림

등으로 겉모습이 흐트러져도 ‘남편이 이해하겠지’라며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외모를 가꿀 시간도,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외출할 때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린다. 많은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보며 속상해하고 다투기도 한다. 이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아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목회자 아버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날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부부가 반드시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 시간에 연세가 제법 드신 목회자 한 분이 자진해서 앞으로 나오셨다.

“후배 목회자와 사역자의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해 창피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젊었을 때의 일인데 어느 날 한 여 성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서 꿈틀대는 성적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계

속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여보, 우리 성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그동안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당신을 조금 멀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단칠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나며 혼낼 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기도하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웃으며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라고 했더니 아내는 “그래요 그럼 오늘 밤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저를 힘들게 했던 성적 욕구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성적 고민 외에도 문제가 생기면 늘 아내와 상의합니다. 아내와 저의 신뢰감과 친밀감이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들은 정말 불같은 성적 유혹을 받는다. 아내가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써야 한다. 남편과 서로 성생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며, 기쁨을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의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부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간다. 별거했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하나 됨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영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성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부부의 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정에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말씀대로 살면 매일이 축제입니다

느헤미야 10:28~33, 12:43~47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인생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즐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라 했으니 예루살렘 성안에 기쁨의 소리가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만이 기쁨의 즐거움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면 그 가정에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 나라와 민족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기쁨은 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로운 것이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쾌락이 주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여기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이러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참된 기쁨으로 가는 여정

성벽 완공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성벽 재건 이후 일어난 백성들의 변화, 회복, 회개와 부흥의 역사, 영적 성벽 재건의 역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절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가는 여정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회개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장 긴 기도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를 아뢰는 간구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보다 훨씬 길다면 합당하지 않은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짧게, 우리의 회개는 길게 드리는 기도가 참된 기쁨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바꾸는 순종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서명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합당한 벌을 각오할 정도로 엄격하게 서약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신앙공동체에서 삶을 바꾸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법을 지키기로 서약했습니다. 이방 신을 들여오는 결혼을 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서약은 안식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질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을 통해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이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쉬 없이 매일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적절한 휴식과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할 뿐만 아니라 원래 토지로 회복되고, 종들도 해방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의 서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제사들이 제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제정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올 때는 율법을 듣고, 제정된 제사를 드리며, 성전세, 구제, 나눔의 십일조를 내게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앙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그것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국가를 교회화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공동체를 유지하기 힘든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CGNTV가 비대면 예배가 한창일 때 3백여 교회에 장비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러나 해 주지 못한 교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

다면 도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언약’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언약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최초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혼생활의 부정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이 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언약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결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이 존재합니까?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염색체 외에 또 다른 염색체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 수많은 이념과 사상, 차별 받는다는 프레임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안식이라는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각자 은사를 통해 섬기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이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가는 여정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성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자진 헌신, 당연 헌신, 우선적 헌신이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십분의 일을 제비 뽑아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자원해서는 그곳에 거주할 인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은 것 같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원이 형성됐습니다.

의무가 기쁨이 됩니다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느 7:4).

예루살렘은 세상적인 이점이 전혀 없는 도시였습니다. 성전이 있기에 율법에 더 철저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상업 도시가 아니었기에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없었습니다. 농사짓기에도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큰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살고 싶지 않은, 살아서는 안 되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지도자들이 먼저 살기로 헌신했고, 제비 뽑아 택함을 받은 이들이 기꺼이 헌신함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재건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과 12장에는 그때 헌신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헌신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들이 확정된 이후 비로소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바로 봉헌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씀 앞에 모여 듣고, 회개하고, 가정과 일터와 신앙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들을 정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모읍니다.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학사 에스라가 인도해서 좌측으로 행진하고,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오른쪽으로 행진해서 만나도록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나누어 행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비아는 반대 세력의 주동 세력입니다. 토브(종다)와 야(여호와)는 여호와를 선포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교활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입니다. 도비아가 “이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모두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43절 이후 이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 기쁨은 자신들의 성취로 인하여 얻은 기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이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얻은 기쁨입니다. 대가가 주어진 기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물과 첫 수확물과 십일조를 모아 두는 창고를 맡을 사람들을 임명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율법에 정해진 몫을 여러 성들의 들에서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14면에 계속)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

교회가 ‘노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노인 돌봄, 디지털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더 좁아진 취업 시장 탓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중장년들은 골이 더 깊어진 가정문제와 갑작스러운 실직, 앞당겨진 은퇴에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노인들은 더 깊숙이 파고든 외로움과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을 주제로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교회가 각 세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 마지막 세대는 노년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코로나(코로나19)가 가장 무섭지 뭐...”

며칠 전 길에서 마주친 폐지를 줍던 박영광 할머니(가명)가 하신 말씀이다.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박 할머니에게는 정확한 명칭조차 발음하기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감염 그 자체가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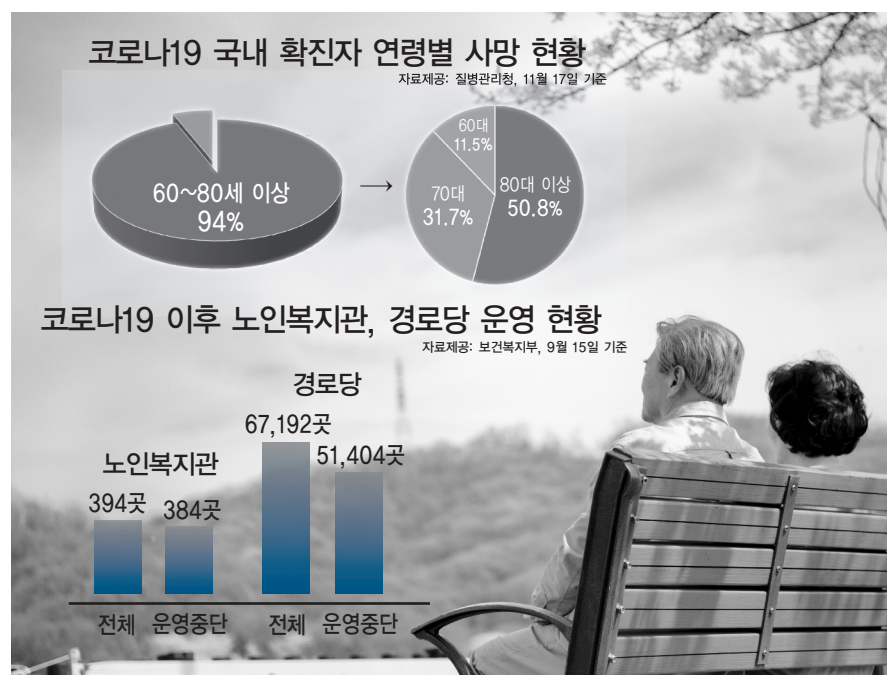
박 할머니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시기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는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의 생계수단마저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 닫는 상가들이 늘면서 폐지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반토막 나다시피 하락한 폐지 가격은 박 할머니를 또 한 번 울상 짓게 만들고 있다.

어디 박 할머니뿐일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년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상당하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은 물론이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생긴 돌봄 공백, 언택트 시대에서 겪는 디지털 소외현상까지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

**감염 우려, 돌봄 공백, 디지털 소외...
외탄성에 갇혀버린 노년 세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안과 공포는 그 어떤 세대보다 극심하다.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연령별 사망 현황(11월 1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94% 이상이 60~80세 이상 노년층이다. 80대 이상이 50.8%, 70대가 31.7%, 60대가 11.5%를 차지한다. 또한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대 확진자들에 비해 여러 기저질환과 합하여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을뿐더러 완치도 어렵다. 노년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같은 시설들이 감염 우려로 인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전국 노인복지관 394곳 가운데 384곳이 휴관했다. 전국 노인복지관 중에서 단 10곳만 운영 중이라는 의미다. 경로당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설치된 경로당 67,192개 중에서 51,404곳이 문을 닫았



다. 전국 경로당 중에서 76.5%가 운영 중단에 들어간 것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우리나라 노년층이 가장 많이 찾는 여가 시설이기 때문에 노년 세대와 사회가 단절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이인자 집사(가명, 73세)도 수개월째 노인복지관에 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인자 집사가 다니던 노인복지관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혹시 모를 감염이 무서워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갑니다. 집밖에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노인복지관에 가겠습니까. 동네 경로당에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지난 명절에 아들네가 가져온 과일을 나눠주려고 전화를 돌려서 동네 할머니들만 잠깐 모인 게 전부일 정도입니다.”

노년 세대의 돌봄 공백 또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꺼리거나 반대로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714명이 “일자리 일부 혹은 전부를 중단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일을 중단한 요양보호사가 20%에 달한다는 의미다. 중단 사유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2%로 가장 많았다.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노인들을 지키기 위한 불가

피한 선택이지만, 노인 돌봄 공백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끼니조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나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집안 수리 등을 도와주던 손길들이 줄었다. 감염을 막기 위해 방문과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할 때마다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식사 및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공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직접적인 가사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년 세대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곳이 또 있다. 온라인 세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택근무, 화상 수업, 온라인 쇼핑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공간이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언택트 시대를 넘어 ‘온택트 시대(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Online)’의 합성어. 온라인을 통한 교육·문화·보건·편의 등의 생활 모습)’가 도래했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온택트 시대에서 노년 세대가 경험하는 디지털 소외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한 예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자출입명부가 등장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QR코드가 있어야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시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방안이지만,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또한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를 신청하려 해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쉽지 않다. 노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집에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 활용에 미숙한 노인들에게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마저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없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인들이 외탄성에 갇히고 있다.

교회가 노인과 세상의 소통창구

코로나19로 인해 세상과 더욱 단절되고 고립되는 노인들을 위해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교회가 노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가 되어줘야 한다. 교회의 다양한 자원과 사역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온누리교회에서는 고립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사회선교부 이웃사랑팀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5월, 독거노인들의 끼니 해결을 돕기 위한 ‘긴급 반찬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들의 명단을 받아 직접 담근 김치와 간단한 밑반찬, 간편 조리식품 등을 배달했다. 대학청년부에서도 사랑애플, 한가위 블레스, 크리스마스 블레스 등의 사역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과 쌀, 먹거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창의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온누리요양센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등 여러 노인복지시설을 직영 및 수탁 운영한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전화상담, 가정 돌봄, 문화생활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년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역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위기에 처한 노인들에게 의료전문가들이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디지털 소외현상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온라인 문화생활에 탁월한 차세대와 청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긴급 반찬 서비스와 사랑애플 같은 노인 돌봄 사역도 더 많아져야 한다. 노년 세대가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쪽방촌 주민들의 아주 특별한 전시회

동자동 주민작가 14명 캘리그래피, 사진, 생활공예품 전시

11월 24일(화)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 작가들의 전시회’가 바로 그것이다.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작가 14명이 캘리그래피(서예), 사진, 생활공예품 등 50여 점을 전시한다. KT그룹이 지원하고,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지난 17일,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주민작가 3명(윤용주, 정영하, 이인구 씨)을 만났다. 주민작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전시를 계기로 삶의 목표와 생활의 활기,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자동 쪽방촌 주민작가 첫 번째 주인공은 윤용주 씨(59세)다. 그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다. 의족과 지팡이, 전동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이지 못한다. 그가 쪽방촌에 들어온 것은 18년 정도 됐다. 그림으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원래 그림을 그려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서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하던 포크레인 임대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IMF가 닥쳤다. 사업이 부도나면서 길거리로 나왔게 되었다.

“노숙생활하면서부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끼니를 해결하려고 많이 걸어 다녔는데 발가락이 부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더 큰 화를 불렀다.

“병원에서 약만 받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시 노숙생활하면서 병이 악화했습니다. 골수염 진단을 받고 다리를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20여 차례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바로 절단을 했습니다.”

의족에 의지한 생활은 불편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은 쪽방 생활이 더 힘듭니다. 공동화장실에 무릎으로 기어가야 할 정도니까요. 그나마 지금은 나은데, 예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예 외출도 못했고요. 환상통(절단된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성 감각 이상)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여섯 차례 맞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다리가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낄 때도 있고, 절단한 부위의 살이 파고드는 것 같은 고통도 느낍니다. 의족이 닿는 부위도 너무 아픕니다.”

윤용주 씨에게 서울역쪽방상담소 프로그램은 한 달에 다섯 번 가는 병원 외의 유일한 외출이다. 가난, 질병, 장애, 정신적 고통까지 홀로 견디며 너무 힘든데 그를 조금이나마 다독여주는 건 교회와 서울역쪽방상담소다.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누리교회 집사님들이 가족처럼 연락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십니다. 제가 사는 곳에 찾아오시면 더 반갑고요. 공간이 협소해서 여러 사람이 오시면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찾아와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작가들의 전시회에 걸린 윤용주, 정영하, 이인구 씨의 작품(왼쪽부터).

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이번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림만 그리다가 서예를 해봤는데 다들 제가 서에도 잘한다고 말씀해주시네요(웃음).”

윤용주 씨는 이번 전시회를 향한 남다른 포부와 기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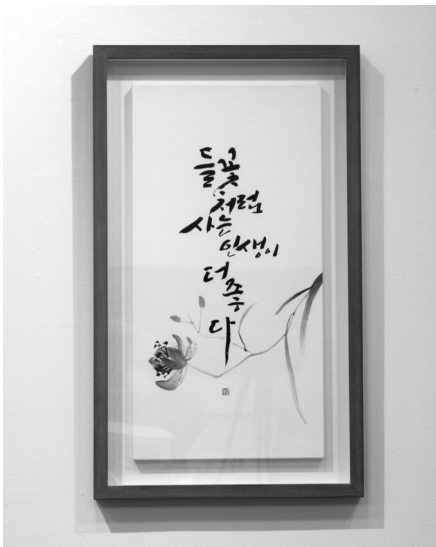
“제가 ‘함께 걸어가길 외롭지 않은 길’과 ‘말이란 천금보다 귀하다’라는 글귀를 썼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것을 더불어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쪽방촌 주민들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말과 관련한 글은 ‘말한 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우리가 더불어 산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주 씨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다.

“앞으로 제가 그린 그림과 서예 작품 판매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우리의 고향이자 사랑방

주민작가 두 번째 주인공은 정영하(60세) 씨다. 정영하 씨는 동자동에서 나고 자랐다. 이곳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해방촌 오거리에 있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동자동 쪽방촌을 날마다 제집 드나들 듯



찾아오고 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는 그녀에게 아지트나 다름없다.

“여기 사는 쪽방촌 사람들 잘 알지요. 알다 마다요. 서울역쪽방상담소도 초창기부터 다녔습니다.”

정영하 씨는 늘 쪽방촌을 잊지 않았다. 아니 잊지 못했다. 날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역쪽방상담소 프로그램 정보도 빼놓지 않고 살핀다. 그녀는 서울역쪽방상담소를 참 좋아한다. 특히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하는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서울역쪽방상담소에 나오면 그렇게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쪽방상담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하 씨도 이번 전시회를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무엇인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마음도 몸도 아픈 사람들이 뭐라도 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했구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작가 세 번째 주인공은 이인구 씨(51세)다. 서글서글한 눈웃음과 순한 인상이 포근함을 주는 사람이다. 그는 뇌졸중으로 심각한 언어 및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 움직임도, 발음도 많이 부자연스럽다. 세 마디 이상 대화가 어려울 정도다.

이인구 씨가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온 건 3년



남짓 됐다. 쪽방촌에 들어오기 전에는 한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였다. 그가 뇌졸중에 걸리고, 쪽방촌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술 때문이었다.

“술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하루에 소주 뒷병을 아침에 다 마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그 누구도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인구 씨는 온누리교회 남대문희망공동체(용산구 한강대로 363-2 ISB서울빌딩 2층)에 소속되어 있다. 온누리교회와 서울역쪽방상담소는 그에게 사랑방이나 다름없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불편하지만 교회가 너무 좋고, 서울역쪽방상담소가 너무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서 열심히 다닌다.

“오늘도 교회에 갔습니다. 어제도 갔고요. 방에 혼자 있을 때는 CGNTV를 틀어놓습니다. 찬양도 듣고요.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 말씀을 쓰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좋고요.”

이인구 씨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전시회에 초대했다.

“조금씩 쓰다 보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글씨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조금씩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가 그 결과물입니다. 작품들을 보고만 있어도 정말 흐뭇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들의 작품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문의: 서울역쪽방상담소 02-3789-5119

혼돈을 이기는 평안의 리더십

‘언어와 존재 코칭 모델’로 본 언어의 힘



홍성호 장로
(성북공동체,
성균관대 교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 개발 등의 좋은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가 개인과 조직, 각 나라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뒤덮고 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다(약 4:14)는 성경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안개가 뒤덮인 것 같은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히 크리스천 리더라면 어떻게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대처하고 돌파해야 할까?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평하게 비와 눈을 내려주신다. 해와 별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추신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언어는 일상생활의 소통에 필수일 뿐 아니라 혼돈스러운 상황을 돌파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의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크리스천 관점에서 혼돈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언어와 존재 코칭 모델’(그림 참고)을 함께 살펴보고 싶다.

이 모델은 페르난도 플로레스가 미국 버클리대학에 제출한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앨런 실러가 구성한 것이다. 이 모델은 플로레스가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언어의 힘’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크리스천 관점에서는 친근한 모델이기도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존재 코칭의 핵심, 내면에 어떤 언어를 품느냐

이 모델은 ‘1차 범주 학습’과 ‘2차 범주 학습’으로 구성된다. 먼저 모델 우측 상단의 1차 범주 학습은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익광고에 나타난 흡연자의 폐암 걸린 사진을 떠올려보자. 이 사진을 결과로 보여주면 이를 본 사람들이 금연이라는 행동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자신이 가기 원하는 대학 캠퍼스를 먼저 둘러본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재학생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국가나 기업 등 조직의 리더십은 연발의 재정 상황을 결과로 예측하고 연초에 정책을 변화하거나 보완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1차 범주 학습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학습만 알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때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불안에 빠지기 쉽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흐름에 맡기는 경우보다 더 큰 혼돈과 어려움에 부딪칠 위험성도 있다.

반면 존재 코칭 모델의 좌측에 보이는 2차 범주 학습은 언어와 감정, 육체가 상호작용하는 존재 방식을 스스로 관찰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존재 코칭 모델이 전제하는 것은 일상적인 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집을 이루는 언어가 있다는 점이다. 말이 육신이 되듯이 존재의 언어가 감정과 육체를 다스리고, 새로운 행동을 촉발하게 해서 탁월한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반복적인 2차 범주 학습을 통해 리더는 더욱 깊은 변화를 이뤄간다. 한 사례를

던 간부 회의에 10분 이상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기피 업무를 주도적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라는 점이다.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니기에 남이 알아주건 말건 지속하였고, 당연히 관계개선과 더 나은 성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이 리더는 위기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결국 존재 코칭의 핵심은 내면에 어떤 언어를 품느냐에 달렸다. 이 언어에 따라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사례를 존재 코칭 모델에 비

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길 수 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의 “평안을 주노라”고 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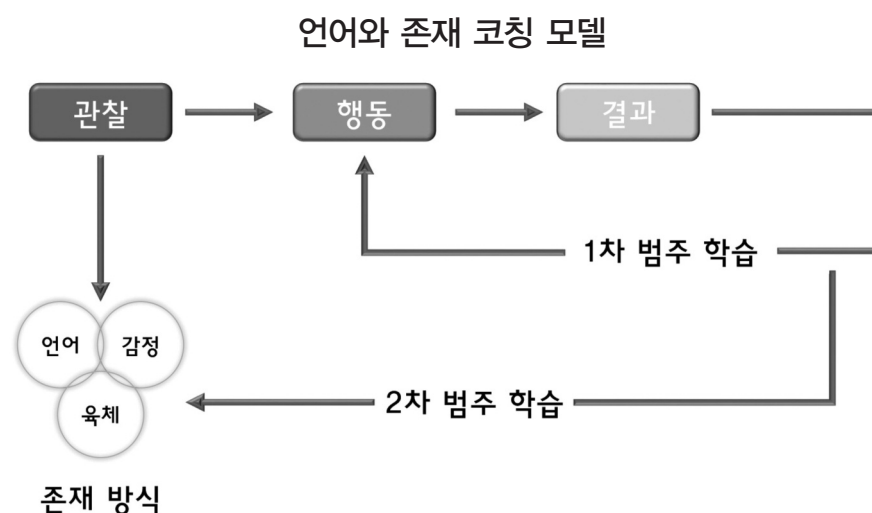
예수님이 왕이므로 그의 평안을 받은 우리는 평강의 왕이다. 우리는 안개 인생의 초조함과 두려움을 벗고, 어떤 고난이나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의 왕으로 변화해서 담대하게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며 산다. 언어는 무의식의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는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는 셈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평강의 왕이라는 존재의 언어를 새겨놓으면 나도 모르게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 언어에서 비롯된 존재 혁신은 행동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져 확실한 성과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상황이 나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로 성숙하게 한다.

급작스러운 고난과 혼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집단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개인이나 가정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3년 전 소천하신 선친은 9대 종손이자 공직자로서 가문의 기둥이며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평생을 헌신한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지휘관 이임식은 지나온 날에 비하면 불안이 가득한 혼돈스러운 자리였다. 부모님은 당시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이임식 당일 아침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말씀을 듣고 의연히 어려움을 이기셨다. 평안의 복음은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없던 우리 가족에게 입힌 최초의 말씀이다. 이후 하나님은 선친에게 믿음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력과 리더십을 경험하게 하시고, 국경을 지키던 장군에서 전 세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로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재앙 같은 혼돈의 시기에 평안을 주시며 소망을 이루신다. 우리는 앞날을 모른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절망의 언어를 버리고, 은혜의 말씀을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는 마음에 불쑥 떠오르는 오만가지 생각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듯이 강력한 목표를 정할 수는 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축복이자 도전이다.

잠시 기도해보자.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각양각색의 단어와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 너머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향한 확실한 첫걸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수첩에 기록하고 행동에 옮겨보자. 혼돈스러운 현실에서도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당신을 왕 같은 제사장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영원한 평강의 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면에 어떤 언어를 품느냐에 따라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마음에 ‘평강의 왕’이라는 존재의 언어를 새겨놓으면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

보자.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조기 발탁되었으나 곧 한계에 부딪혀서 혼돈을 겪는 리더가 있다. 정작 승진하고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니 온갖 질서와 견제가 들어왔다. 책임은 무거운데 관계는 어렵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더는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자신의 존재 중심에 어떤 언어가 있는지를 관찰해봤더니 ‘전쟁’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직장이 전쟁터 같고, 자신이 전사같이 느껴졌다. 특히 회의장에 있을 때 전쟁이라는 내면의 언어가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을 촉발하고, 가슴은 위축되어 만성 통증까지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을 다시금 관찰하며 생각해보니 자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은 승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전쟁보다는 도전의 기회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 대신 더 높은 기록을 추구하는 높이뛰기 선수처럼 ‘도전’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마음에 새겼다. 내면의 언어를 전쟁에서 도전으로 바뀌더니 감정이 적개심과 분노에서 신선한 긴장으로 변했다. 이에 따른 행동 변화는 자기 싫

추어 생각해보자. 우선 건강상태로 보면 사도 바울은 중증질환자이다. 병명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고쳐달라고 몇 차례 간구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은 능히 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 그의 감정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후 12:4, 9). 그는 몸의 약함에도 오히려 담대해져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간절히 바라던 로마에 가게 된다. 그리고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설정한다.

“그러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후 5:9).

사도 바울은 육신의 처지나 상황을 완전히 넘어서는 변혁과 돌파 리더십의 전형적인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따르는 ‘평강의 왕’이라는
존재의 언어를 새겨놓으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들

기뻐하는 이웃들과 함께!

대학청년부 '한가위 블레싱' 종료 10개 공동체 32개 지역 교회 및 기관 방문

대학청년부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2020 한가위 블레싱' 행사를 개최했다. 대학청년부 10개 공동체가 소외된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 교회 및 기관 32곳을 섬겼다.

대학청년부 '한가위 블레싱'은 추석을 맞아 이웃들에게 보람달처럼 풍성한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 시작된 사역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지역 교회 및 기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필요에 꼭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한가위 블레싱 행사를 섬기면서 나누는 기쁨과 감동을 선물 받고 있다.

올해 대학청년부 한가위 블레싱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풍성했다. 특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역을 이어나갔다.

여호수아청년부는 경기도 파주 은빛교회에 식료품, 남대문 희망공동체에 마스크, 언덕 위 신흥교회에 식료품, 안산M센터 차세대에게 간식, 안산M센터 필리핀 한글반에 식료품, 명진들꽃사랑마을에 아동용 내복과 과일, 경기도 고양 천사의 집에 반찬과 과일, 경기도 안산 국경없는교회에 식료품과 위생용품, 주님의새교회에 타올을 선물했다.

J4U 청년부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목도리, 경북 상주보육원에 색연필과 펜, W청년



여호수아청년부가 언덕 위 신흥교회에 먹거리를 선물했다(위). 하늘대학부는 삼성교회에 식료품을 전달했다(아래).

부는 경기도 남양주 진중교회에 내복과 장갑, 인천 동산교회에 식자재와 사무용품, 애란원

에 분유, 요셉청년부는 은혜샘교회에 식료품, 길벗교회에 식료품 및 전도용품, 경기도 포천

하랑다문화센터에 식료품, 등대교회에 식료품 및 전도용품, CH PLUS청년부는 충북 충주 아름다운교회에 식료품, 경기도 성남 세움교회에 식료품을 전달했다.

SNS청년부는 우리들교회와 새소망교회, 주바라기 그룹홈, 주사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 생필품과 식료품, 김청년부는 우리는교회와 은강교회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하늘대학부는 강원도 영월 영락교회에 식자재 구입비용, 삼성교회에 식료품, 25사단에 식료품, 허브대학부는 청운노인복지관에 양말과 운동용품, 청운보육원에 휴매트, 크림, 티셔츠, Pole2대학부는 작은자교회에 식료품을 선물했다.

이명은 자매(여호수아청년부)는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향자매(요셉청년부)는 "우리가 보낸 작은 선물을 받은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것 같아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이민아 자매(SNS청년부)는 "기뻐하는 이웃들과 공동체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비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명진들꽃사랑마을에서 보내온 편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진들꽃사랑마을 온누리제이컴사역팀(여호수아청년부)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명에 사회복지사입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청년부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명진들꽃사랑마을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문화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제게 온

누리제이컴사역팀이 언제 오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사역팀과 함께 외출하고 돌아온 날이면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즐거워 보여서 저까지 행복해집니다.

명진들꽃사랑마을 중·고등학생들과도 담소를 나누며 고민거리나 대학진학 관련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

황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시고, 멘토 역할을 해주신 덕분에 명진들꽃사랑마을 청소년들이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누리제이컴사역팀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정말 큼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명진들꽃사랑마을 아이들도 매일 온누리제이컴사역팀이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며 보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 형과 누나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명진들꽃사랑마을로 보내주신 아이들의 예쁜 내의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내의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명진들꽃사랑마을 아이들을 응원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심명에 사회복지사(명진들꽃사랑마을)

남양주 진중교회에서 보내온 편지

“W청년부는 정말 큰 선물입니다”

온누리교회 W청년부와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동역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W청년부는 진중교회에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지난해처럼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로 인해 더욱 하나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졌던 사역이 잠시 멈춰진 후, 수 개월이 지났지만 이번 한가위 블레싱 사역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W청년부가 평소에 교회와 아이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고, 꾸준한

소통과 기도를 하며 가족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가위 블레싱 기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과 일치한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에 설렘과 기대로 아이들의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느낀 부모님들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되는 기쁜 마음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가정에서 심방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상

황이었는데 W청년부와 함께하는 한가위 블레싱 사역 덕분에 각 가정을 심방하며 가정을 살피는 일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의 귀한 마음들이 남양주 진중교회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역의 현장에 차고 넘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지현 전도사(남양주 진중교회)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김포M센터 이주민 세례식

가장 가까운 이웃 '김포M센터'

고국의 부름에 단숨에 한국에 온 김백수(80세) 성도님과 아내 김가리나(78세) 성도님의 표정이 기쁨 그 자체였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고국은 러시아와 언어, 음식, 문화 등이 모든 것이 다르고 낯설었다. 고향 속에서 울고 지내고 있던 차에 이주민센터에서 만난 한 성도님이 김포M센터를 소개해줬다. 그렇게 김포M센터가 사할린동포 6명과 러시아인 1명을 섬기게 되었다. 김포M센터에서 한국어 교사 연결을 위해 기도했는데 러시아에서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봉사자를 보내주셨다.

김포M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한국어 수업과 한국 음식 만들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 김계위라, 블라디체, 김가리나 성도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매주 수요일 한국어 수업 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부족하고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김가리나 성도님 남편 김백수님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이여기를 읽고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코로나19로 김포M센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가 성경을 나누었는데 김백수 성도님이 “매일



김포M센터는 러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아침 눈을 뜨면 나와 아내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줘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안산M센터 러시아공동체 세르게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김백수, 김계위라 성도님의 세례교육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축복 가운데 세례식이 열렸다. 이를 뒤 11월 8일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빼셋

형제, 로핫 자매, 쏘클레앙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 빼셋, 쏘클레앙 형제의 경우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SNS를 통해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올해 1월에 식당에서 만난 여타부부를 통해 김포M센터 주변에 지난해 말부터 재정착 미얀마 난민 20가정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2월부터 김포지역의 2,300명 미얀마 근로자와 난민가정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차세대 모임과 예배는 11월 7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김포M센터 차세대는 가정방문과 돌봄 교실 모임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토요일에 열리는 ‘온누리 글로벌 아카데미(OGA)’가 시작되자 기다리던 다문화가정 아이들 29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각자 발레반, 영어반, 한국어반 활동을 했다. 주일에도 30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미얀마 난민가정이다. 또한 이집트, 방글라데시 출신 재정착 난민(준머족), 베트남 등 여러 지역에서 온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끄는 믿음의 리더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포M센터의 예배와 사역들은 온누리교회의 성도들과 김포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 헌신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 그동안 한국어 교사, 어린이 교사, 주방봉사, 여러 재능기부로 섬겨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예배와 차세대 모임을 위한 공간과 승합차, 차량봉사자, 차세대교사, 수학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문의: 031-8048-9446, 010-6869-4290

/ 구자현 선교사(김포M센터)



코로나19, '가정예배'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엄마의 고백

“우리 가정이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거리가 줄어들고, 집안 살림이 더욱 바빠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신앙문제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순 식구들과 삶과 신앙을 나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문제가 생겼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물론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보니 예배 중간에 물을 마시러 다녀오기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예배 시간만 지키고 있었다.

무너지는 예배와 신앙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정예배를 떠올렸다.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힘쓰기 위해 가정예배를 드렸다. 주일이 되면 아이는 방에서, 우리 부부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순 식구들과의 온라인(ZOOM) 만남이 시작된다. 온라



표은정 성도(푸른누리공동체) 가정은 매주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인으로 얼굴을 보고 삶을 나눈다. 아이들도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 것을 즐거워하며 순예배를 드린다. 예배와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집중한다면 평일에는 아이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학습지를 푸는 것처럼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나눠준 교재를 가지고 매일 신앙 공부를 하고

있다.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교재에서 제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이가 어려서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와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이가 공과공부를 할 때도, 암송을 할 때도 동화구연을 하듯 말씀을 읽어 주고,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니엘

처럼 엄마랑 같이 기도해볼까?” 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아이가 예배에 집중하거나 말씀 암송을 잘 마친 날에는 작은 파티를 연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이거나 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작은 장난감을 선물한다.

물론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쉬고 싶은 날도 있고, 깜박 잊는 날도 있다. 그러면 아이가 먼저 다가와 “엄마 오늘은 왜 말씀 안 읽어?”, “엄마 왜 나 축복기도 안 해줘?”라고 묻는다. 아이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에서 답을 찾고 있다. 가정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이 모인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 표은정 성도(푸른누리공동체)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청년부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사 49:16).

이 말씀을 주제로 요셉청년부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이하 Build Up 기도회)을 실시하고 있다. 벌써 40일을 넘기고 있다. 었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다.

요셉청년부 Build Up 기도회는 평소 즐겁고 풍부한 지체들 간 교제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우선순위에 밀려났던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도와 말씀을 사역의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정도로 치부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가장 젊은 날인 청년의 때를 꼭 주님께 드리자는 마음으로 Build Up 기도회에 임했다. 매일 밤 10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갈급한 심령들이 모였다. 나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다. 개인적인 기도제목과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 집중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Build Up 기도회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몇



요셉청년부가 매일 밤 10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Build Up 기도회를 하고 있다.

가지 있다. 첫째, 중보기도의 은혜이다. Build Up 기도회는 찬양, 설교, 중보기도, 개인기도 시간으로 채워진다. 특히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 우리는 “환우들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환우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빠르게 그러나 다르게 응답해주셨다. 천국으로 보내야만 하는 영혼들이 있어서 슬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온전히 품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거울로 비춰주셨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

둘째, 북한을 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힘

들어할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 탈북민사역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여러 결핍이 있고, 구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주 안에서 온전히 거하면서 나의 약점이 장점이 되고, 불안함이 거룩함이 되고, 종교생활이 신앙생활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Build Up 기도회를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안 잔칫날 같은 나날들이 내 심령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요 2:9-11).

깊은 밤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다. / 배진영 자매(요셉청년부)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청년부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STAND 기도회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예배와 사역이 영상 및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순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다. 온라인 순예배는 순장인 나조차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순원들과 나눔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순원들이 잘 보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지속됐다. 그러면서 순과 내가 영적으로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힘들었다. 여러 교제 모임들,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들로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왔었는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여호수아청년부에서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STAND 기도회(이하 STAND 기도회)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걱정이 앞섰다.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될지, 과연 내가 52일 동안 혼자 기도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STAND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나의 걱정이 기우(杞憂)였음을 깨달았다.

STAND 기도회 첫 날. 개인적인 일을 모두 마치고 방에 들어와 줌(ZOOM)에 접속하고 작은 보조등을 켰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자리에 앉아 기도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어색



여호수아청년부가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52일 동안 STAND 기도회를 열고 뜨겁게 기도했다.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나의 걱정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동역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작된 STAND 기도회는 어느 현장 기도회 못지않게 뜨거웠다. 정말 오랜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였던 말씀이 생각났다.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시간이었다.

나는 STAND 기도회 초반에는 거의 침묵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STAND 기도회에 익숙해지려는데 52일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다. 아쉽다. 그러나 STAND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밤 10시 이전에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습관이 생겼다. 혼자서도 소리 내어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다.

이제 STAND 기도회는 끝났지만 기도습관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 매일 밤 10시 이전에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한다. 혼자서도 소리 내어 기도하려고 한다. 하루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고 싶다.

아직은 연약해서 그런지 기도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것 같다. 가끔 밤 10시가 지나서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한다. 기도습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라인 순예배도 재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 송나라 자매(여호수아청년부)

기도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천 이웃들

따뜻한 밥상 최운형 목사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3,000원 김치찌개로 응원하는 최운형 목사.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에 공깃밥은 원하는 만큼.

이 상차림에 투박스러운 식당 주인아저씨의 정성과 사랑이 담뽕 담겨있다. 이 따뜻한 밥상의 가격은 단돈 3,000원이다. 이 가격에 맛까지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달짝지근한 김치찌개와 고슬고슬한 밥맛이 일품이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뛰어넘어 ‘남는 것이 있을까’ 싶어 식당 주인아저씨 걱정이 앞선다. 이 식당 주인아저씨(최운형 목사)는 전직 목사님이다. 미국 중견교회 담임목회직을 내려놓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연신

내역 인근에서 ‘따뜻한 밥상’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한 끼 먹고 가라고 김치찌개를 싸게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한 신부님이 청년이 굶어 죽은 것을 보고 식당을 열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나도 식당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 누가 밥을 굶나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올해 20대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21%나 급증했다.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이 월세, 통신비, 교통비를 줄

일 수 없어서 밥값을 줄이는 실정이다. 컵라면, 삼각김밥,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는 청년들에게 최운형 목사의 김치찌개는 한 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취업을 하거나 일이 잘 풀린 청년들이 찾아와서 ‘힘들고 막막했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면서 인사하면 그렇게 뿌듯합니다. 제가 식당을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최 목사는 목회할 때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교회는 교회 밖 이웃을 섬겨야 하는데 교회로 모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 어렵게 돈을 버는 성도들의 현금으로 사례를 받는다는 부담감이다. 그래서 그는 자립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반지하에서도 생활하고 월급도 잘 못 챙기지만 마음은 뿌듯하다.

따뜻한 밥상이 내년 명지대학교 인근에 3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다.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은 목회자들이 가게를 오픈하고 있다.

“후원과 한물도 감사하지만 자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해주시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밥상 초기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위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연서로 280 2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 신간

예배의 본질과 온전한 회복

“언택트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책 표지에 적힌 이 문구가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의 핵심 내용을 묻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예고도 없이, 준비하지도 못한 채 맞이하게 된 언택트 시대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한다.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을 통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다>는 ‘성막: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증거: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절개’, ‘상: 하나님이 차려 주신 영혼의 식탁’, ‘등잔대: 영혼을 밝히는 은혜의 빛’, ‘분향단: 하나님에게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 ‘휘장: 삶을 뒤덮는 영광의 자락’, ‘널판: 거룩한 성결로 세우는 예배자의 삶’, ‘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반제단, 물두멍: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회복’ 등을 주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풀어나간다.

성소와 지성소, 휘장, 기둥과 널판, 법궤와 분향단, 반제단과 등잔대, 물두멍 등 성막의 구조물과 기구들의 어원과 쓰임새, 상징성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을 설명한다.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땅에서 교회공동체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공유하고 싶은 기독교 콘텐츠

성경적 시각으로 보는 세계 명작 영화

유튜브 채널 시네마브런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개

유튜브 채널 시네마브런치가 지난 10월 28일 ‘크리스천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소개하며 문을 열었다. 유튜브 채널 ‘시네마브런치’는 추상미 감독(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무영 감독(영화 ‘한강 블루스’), 성현 목사(필름포럼 대표)가 출연하는 영화 토크쇼다. 세계 명작 영화들을 성경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소개하는 채널이다.

유튜브 채널 시네마브런치에서는 기독교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소개한다. 영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크리스천들의 삶에 주어진 문제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 나간다.

유튜브 채널 시네마브런치가 소개한 첫 번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년, 켄

로치 감독)는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품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조명하며, 영국의 부조리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사회의 시선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튜브 채널 시네마브런치에서는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약자와 이웃들을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앞당겨진 기술발전과 언택트시대(비대면)를 뜻하는 ‘언택트(Un tact)’와 ‘온라인(Online)’의 합성어. 온라인

을 통한 교육·문화·보건·편의 등의 생활)에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걸어도, 걸어도’ (2009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를 소개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해두었다.



발소리

날려 가는 낙엽들 속으로
떠나가는 가을의 뒷모습
비바람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초겨울 발소리

벌판을 덮던 들꽃 향기도
다정한 미소도 속삭임도
유유히 흐르는 강에 실려
강어귀를 돌아 바다에 닿지

비바람이 비워 놓은 자리는
무엇이 들어와 채워 주려나
한 막이 이제 곧 끝나리니
새 만남을 다음이 준비하지

시간이 어찌 헛되이 달리리
언젠가 왜인지 어째서인지
오묘하게 설계된 항해이기에
그 길엔 큰 뜻이 담겨 있으리

— 이원로 장로의 시선집 <감사와 공감> 중



사진은 지난해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대학청년부, '2020 사랑앓나눔'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 1천 가구 지원

대학청년부 '2020 사랑앓나눔' 사업이 12월 5일(토)과 12일(토) 실시된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1천여 명이 서울 시내 불우이웃과 차상위계층 1천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쌀과 반찬, 생필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요셉청년부는 중랑구복지관, 길청년부는 종로노인복지관, 여호수아

청년부는 교남주민센터와 사직주민센터, J4U청년부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SNS청년부는 수서명화복지관과 산마루교회, W청년부는 나섬교회, 갈렙청년부는 답십리주민센터, CH PLUS청년부는 등대교회를 섬길 예정이다.

허브대학부는 신양장로교회와 나눔센터, 중앙사회복지관을 섬긴다.

하늘대학부는 관악노인복지관, Pol e2대학부는 작은자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랑앓나눔 사업에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1,070명이 참가해서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전,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 개최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11월 22일 대전 온누리교회 6층 본당과 세종교육관 본당에서 막 오른다. 대전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는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세종교육관 본당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러빙유 전도집회에서는 기도와 교제, 설교, 간증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설교는 김상수 목사(대전 온누리교회)가 한다.

문의: 042-825-3642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3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성경적 어머니상을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세우는 사업이다.

문의: 02-2182-9114

"지붕 뚫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기를"

제6회 온누리선교컨설팅 개최

코로나19 시대 온누리교회 선교를 논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6회 온누리선교컨설팅이 지난 11월 17일(화)과 18일(수) 개최됐다. Acts29 비전빌리지와 Webex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제6회 온누리선교컨설팅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넬슨제닝스 박사, 조샘 선교사, 선교기관장 등 국내외 선교리더십들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온누리선교컨설팅에서 선교리더십들은 "융합선교, 촉매선교, 선교의 공공성과 총체성, 일상에서의 선교, 온라인, 디지털 사역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가 한계적 상황 속에서 지붕을 뚫는 곧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격려했고, 넬슨제닝스 박사는 "민족주의, 문화적 우월성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홍주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권면했다.

iWe(아이위) 참가자 모집

온누리교회 청년부 35~45세 형제자매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위한 남녀 매칭 프로그램 'iWe(아이위)'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12일(토)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3주 동안 'iWe(아이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비대면 그룹별 미팅 및 이벤트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iWe(아이위)'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청년부 35~45세 형제자매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다. 이메일로 이름과 연락처, 소속공동체를 전달하면 iWe(아이위) 참가지원서를 보내준다. 회비는 5만 원.

'iWe(아이위)'는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및 신청: cgkh0606@hanmail.net

'킹스웨이코리아' 창립 및 준공 감사예배

의약품과 의료용품 무상으로 공급하는 역할

킹스웨이코리아(Kingsway Korea)가 지난 11월 14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창립 및 준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킹스웨이코리아는 온누리교회에 속한 비영리 기독교 단체로 '킹스웨이 USA'와 연합해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 가난한 환자들에게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킹스웨이코리아의 모든 사역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현재 (주)메지온에서 킹스웨이코리아의 사역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킹스웨이코리아의 자매 사역단체인 킹스웨이 USA는 미국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 기구들을 후원받아 의료선교단체와 교회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을 포함해서 145개국 11,000개 의료선교팀에게 의약품 및 의료기구를 전달했다.

킹스웨이코리아 담당 양성민 목사는 "킹스웨이코리아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 02-570-7546

/ 홍하영 기자

12월 5일 임직예배

권사 205명, 안수집사 356명 임직

2020년 임직예배를 12월 5일(토) 오후 4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2020년 임직대상자는 임직자스쿨과 개인영성 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독서보고서, 큐티말씀묵상, 봉사활동) 과정을 모두 이수한 561명이다. 권사 205명(명예권사 10명, 권사 195명), 안수집사 356명(남 136명, 여 220명)이다.

2020년 임직 대상자들은 임직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복장은 남자 검은색 정장(흰색셔츠), 여자 검은색 바지 정장, 흰색 블라우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창립 10주년 기념식

11월 24일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NGO 더멋진세상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오는 11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NGO 더멋진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NGO 더멋진세상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김창욱 사무총장, 현지 사역자들이 참석해서 NGO 더멋진세상 지난 10년의 은혜와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공유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0년 동안 지구촌 이웃 618,021명을 섬겼다. 37개국에서 29개 마을을 개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NGO 더멋진세상의 역사와 섬김의 은혜를 담은 저서 <세상에서 만난 더멋진세상>을 출간했다. 온오프라인 두 판노서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회 대학청년부 영상공모전 시상

용산구 장애인 사진사진 촬영 봉사

CGNTV가 지난 11월 16일 제1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노현구 형제(SNS공동체)가 대상을 받았다. 이날 CGNTV는 대상(500만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등 총 8명에게 부상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 노현구 형제는 "청년들이 왜 복음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면서 "생각지도 못

한 큰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영상공모전 수상작은 'CGNTV 챌린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11일 CGNTV가 서울 서빙고동에 위치한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장애인 가족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용산 지역 장애인 9가정이 참여해 가족사진을 찍었다.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간증



/ 양호석 성도(서대문공동체)

아내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전북 익산으로 내려갔다. 어머니께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자장면을 같이 먹고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TV에 연결했다. 전도사역본부에서 기도하고 정성으로 제작해서 요청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준 영상이었다. 그런데 접속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영상이 담긴 태블릿PC와 TV의 연결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도 음향도 나오지 않았다. 초조했다.

잠시 뒤 TV에서 선명하게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이 흘러나왔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선수, 배우 하정우, 윤유선 씨의 환영 인사, 가수 이무송, 노사연, 신인선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름 그대로 행복을 전달해주는 콘서트였다.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한참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다.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래도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했다. 어머니가 이재훈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실 거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가수들의 공연이 끝나고 내가 어머니께 드리는 영상편지가 흘러나왔다. TV에 나오는

아들의 편지에 어머니의 눈과 마음이 화면을 향했다. 이어서 이재훈 목사님의 메시지가 시작됐다. 어머니는 순한 양처럼 시선을 TV에 고정된 채 말씀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시하는 영접기도문을 또박또박 따라 하셨다.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까?”라고 결심질문을 하자 어머니가 “그렇지!”라고 대답하셨다. 결심서에도 서명을 하셨다.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이 종료되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어머니가 큰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셨다. 성령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누리교회 전도팀과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치매 때문에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있었던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실지라도, 오늘 어머니의 온전한 정신과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은 결코 무효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아들이 읽어드린 편지와 당신이 친필로 쓴 결심서를 보시면 분명 오늘 일을 기억하시리라 믿는다. 어머니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CGNTV를 연결해드릴 계획이다.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연훈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전도학교 첫 번째 과제는 전도전문 외우기였다. ‘아 망했다!’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어릴 적 성구암송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수련회가 스쳐 지나갔다. 암기는 평인데 괜히 신청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도 전문을 잘 외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계속 이어졌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생각으로 외우기 시작했는데 역시 쉽지 않았다.

첫 모임에서 전도 전문을 외우는데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아 매우 좌절하고 부끄러웠다. 불평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 전문을 외우고 내용을 분석하며 묵상했다.

전도 전문을 외우며 예수님의 선물에 대해 묵상했다. 예수님의 선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평안이고, 또 하나는 영생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다. 그러면서 내게도 없는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사기 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의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했다. 곧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외워야 하는 전도 전문이 내 신앙생활을

전도의 세 가지 축복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잣대가 되었다. 전도는 세 가지 축복이다. 이웃사랑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점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바로 그것이다.

장경문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전도방법을 강의하시면서 “이웃을 향한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그들에게서 접촉점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하셨다. 나의 지인과 동료들이 전도하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고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고자 한다. 적절한 만남과 시간, 상황, 용기를 주실 것을 기대한다. 또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외운 전도 전문과 <최고의 행복> 전도지로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동료와 친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을 얻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의인 99명이 순종하는 것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린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나의 것이 되고, 단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와이미션 수료 간증



/ 미호 마사코 성도(야치요 온누리교회)

어느 날 ‘남은 인생도 그리 많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제법 긴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장하지 않은 크리스천으로 살다 가도 괜찮은 걸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첫 강의에서 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강사님의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지금까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주를 알게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처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는 전도해야 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정도의 동기를 가졌던 나에게는 정말 큰 충격

“선교는 나의 일”

이었다. 내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을 알고 또 놀랐다. 갑자기 가깝게 느껴진 선교는 영화 ‘침묵’을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일본에 기독교를 전했던 역사적 배경이나 선교사님들의 각오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왔다. 내가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과 신앙을 전수해주신 신앙의 선배님들 덕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인생이 끝나버리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이미션을 수료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지금 당장 고백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선교는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선교명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 인생에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한다.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선교하며 살아야겠다.

드림온플러스 재팬 프로젝트 신청자 간증



/ 박진국 자매(여호수아청년부)

내가 처음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가한 건 2016년 오사카 행사 때였다. 당시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치고 메달라 있었다. 정말 힘들었다. 그때 갑자기 러브소나타 집회가 너무 좋다는 지인의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한번 참여해 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배에서 러브소나타 광고가 나왔다. ‘무조건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신청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었다.

러브소나타 오사카 집회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러브소나타 행사 당일, 일본인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부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의 일본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고, 또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 나는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매년 두 번씩 러브소나타에 참가했다. 매년 갈 때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참 많이 느끼고 돌아왔다.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1년에 두 번씩 가면서 일본 전 지역에 깃발을 꽂듯이 하나하나

벌써 기대된다!

마음속 지도를 그리게 되었다.

올해 러브소나타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다. 일본에 직접 갈 수 있는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됐다. 너무 많이 아쉽고 안타까웠다. 얼마 전 예배를 드리는 데 드림온플러스 재팬 프로젝트 광고가 흘러나왔다. 드림온플러스 재팬 프로젝트는 러브소나타 집회 대신 일본 협력교회와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한 사람들에게 CGNTV 전용 수신기(셋톱박스)를 선물함으로써 선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광고를 듣자마자 설됐다. 바로 동참해야겠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 코로나19와 국제관계로 인해 러브소나타 집회는 못 하지만, 드림온플러스 수신기를 통해서 일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 그 씨앗이 얼마나 크게 열매 맺힐지 벌써 기대된다.

앞으로도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러브소나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다.

장로칼럼

일만사역과 느헤미안 프로젝트



김영환 장로
(OCC공동체,
일만사역팀)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2000/10000 비전을 선포하셨다. 2000/10000 비전은 이전 명의 선교사와 일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겠다는 비전이다. 당시에는 일만 사역자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전문직을 가진 성도님들이 파송된 지역에서 자비량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2000비전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케어하는 2000선교본부와 두란노해외선교회 등이 있어서 그동안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되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는 누적 선교사 2000명을 파송했고, 그에 따라 2000비전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2000명으로 새롭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겠다는 10000비전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수의 일만사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10000비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셨다.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만사역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셨다. 담임목사님께서 선교본부 리더십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구석 구석에 성도들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일만사역을 변화시켜달라고 주문하셨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일만사역팀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면모를 일신한 일만사역팀은 오랜 시간 모임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며, 회의를 반복했다.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일만사역자 몇 명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무렵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하셨다. 느헤미야서의 처음에 나오는 ‘하나니’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니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기로 했다. 그 아닥사스다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방법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해보기로 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니로부터 전해 들은 일만사역팀이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수많은 느헤미안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의 진정한 재건은 말씀과 예배다. 이를 위해 학사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의 참여가 필수이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느헤미안(Nehemiah)’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NGO의 활동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시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학사 에스라’라고 부른다. ‘학사 에스라’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유지할 것이다. 느헤미안 프로젝트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마무리되는 단기 프로젝트이다.

첫 번째 느헤미안 프로젝트 대상은 무슬림들을 위한 공간인 ‘스타트리 협동조합’이다. 안산M센터 이경원 선교사님이 자비량으로 무슬림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교회에는 발걸음을 잘 하지 않는 무슬림들을 섬기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해주는 공간이다. 한국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느헤미안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빚프로젝터와 집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첫 번째 느헤미안 프로젝트이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발전해 갈 때마다 한국사회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모습을 상상해 본다.

권사칼럼

정말 아름다운 화합의 장



양재경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선교사 사모님을 대상으로 라오스에서 진행된 어머니 학교에서 만난 어머니들은 철저히 훈련된 사역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관심이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정은 차선이거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어머니학교가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부가 함께 회복되기를 소망하셨다. 그 어머니들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항공기에서 선교지에 부부학교를 개설하는 꿈을 꿔다. 선교지에 부부학교를 개설하는 꿈이 나의 소망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 선교지에서 부부학교가 열리기를 소망하던 선교사님 부부 일곱 쌍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해 있던 중에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에 참가했다.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에 목회자 8가정과 함께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가동하며 2박3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일정에 맞게 장소를 비워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 또한 섬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정말 귀한 분들을 충분히 보내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만끽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를 섬길 수 있었다.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 참가자들은 성경적 가정관 강의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정모델을 만나고,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가정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아내에게 미안한 점 10가지를 순식간에 적으면서 이렇게 미안한 점이 많았구나 후회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던 60대 선교사님이 계셨다. 그 선교사님에게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눈물 지었다.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 참가자들은 선교지와 목회현장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2박3일 동안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배우자를 바라보며 처음 연애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배우자의 눈을 가리고 안내하는 ‘신뢰 게임’에서 서로 존재의 귀중함을 새삼 확인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는 모습은 바라보는 이들도 눈물 짓게 만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었다. 알콩달콩 2기 목회자 부부학교 마지막 날에는 ‘대화’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한 접근과 반응이 서툴렀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복의 길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15가정을 기대하고 축복한다.

곧 선교지로 떠날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잘 훈련된 사역자인줄 알았는데 삶 가운데 가정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며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공허해진 배우자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을 회복하려 한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함께 울었다. 주님께서 또 한 가정을 세우시는 기적을 목도했다. 선교지에 새롭게 세워질 가정들을 기대한다.

신앙에세이



안사무엘 목사
(SNS청년부)

벌써 2020년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다. 2020년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올해는 ‘코로나19의 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모든 뉴스와 관심사가 바이러스에 있었던 한 해였다. 매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가 뉴스에 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컨트롤 되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전 세계의 관심사였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보내고 있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제목을 생각해보았다.

올해 감사제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자녀 출산이다. 선배 목회

자들로부터 “자녀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될 거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아빠가 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크게 느꼈다.

첫째, 단순한 기도이다. 올해 3월 건강한 사내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정말 신기하고 오묘했다. 초보 아빠인 나는 아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찢찢매기 일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을 알아갔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필요한 부분을 즉각 채워주는 발전이 있었다. 아들은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울고, 졸릴 때 울고, 무엇인가 불편하면 울었다. 아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울었다. 말을 할 수 없으니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우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아들의 울음을 다르게 생각해보니 기

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온종일 울음소리를 낼 뿐인데 부모는 그때마다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도 시켜주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곤고할 때도 있고, 원하는 일이 실패해서 낙심할 때도 있다.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기만 하면 된다. 사람 앞에서 울면 잠깐의 위로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배움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신다(시 30:11). 역전의 하나님이다

둘째, 성장의 기쁨이다. 이제 200일 갓 낳은 아들을 키우면서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다. 아들을 보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이다. 요

즘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순간은 신생아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담는 것이다. 요즘 아들은 울음소리가 제법 커졌고, 누워만 있던 아기가 뒤집기도 하고, 뒹굴뒹굴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 혼자 앉아 있기도 한다. 제법 어린아이처럼 웃음소리를 내는 행동들을 순간 포착해서 담고 있다.

아들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나에게 큰 기쁨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정제된 신앙이 아니라 성장이 일어날 때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앙의 연수(年數)가 오래되고, 많은 섬김에 능숙하며, 리더라는 타이틀 등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일상생활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내적인 성장 말이다(엡 4: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말씀대로 살면 매일이 축제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서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유다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43~44절).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총명한 기쁨입니다. 드림으로 기뻐하고, 헌신하며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서약까지 하고 나서 이 기쁨이 온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과정, 서약하는 단계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총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항상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된 일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삶의 기쁨과 참된 환희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의무(duty)가 기쁨(delight)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이지만 이 의무가 기쁨이 됩니다. 환희가 됩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쁨의 기름 부으심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로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류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고”(히 1:8-9).

“기쁨의 기름”을 개역개정에서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께 기쁨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히 12:2).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찾아오게 될 영광스러운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너머에는 반드시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바라보시며 십자가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만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고통도 십자가의 고통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미래의 기쁨을 미리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미리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총명한 삶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 세상이 약속하는 기쁨은 인스턴트 즐거움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먼저 즐겁게 해 주겠다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라옵니다. 쉽게 얻어

지는 즐거움은 반드시 그 뒤에 고통의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나 후에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 즐겁고 후에 고통의 열매를 딸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단계를 통과하며 도리어 기쁨의 여생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 환란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롬 5:2-3).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은 환란을 이기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자신의 존재와 그분의 행위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쁨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인간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총명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전도 클리닉 - 4

복음 전도의 정의와 예수님의 전도 전략

복음 전도의 정의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눅 1:19)라고 할 때 사용되었다. 둘째, ‘선포, 설교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23),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되”(막 1:7)라고 할 때 사용되었다. 셋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마 4:23)고 하실 때 사용되었다. 회중에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되었다.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행 1:21~22). 다섯째, ‘제자 삼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고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

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전제하에 크리스천이 수행해야 한다. 모든 인류를 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은 직접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23~25, 9:35; 막 1:39, 3:13~15). 전도 대상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었지만(요 3:16; 딤후 2:4)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둘째, 예수님이 전한 복음 내용은 ‘하나님 나라(천국)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즉,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마 4:17, 5~7, 막 1:15) 사역 내내 천국 복음을 강조하셨으며(마 13:13~52; 19:28, 24:14),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다(행 1:3).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전파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주로 가르침(마 5~7장, 9:35), 선포(마 4:19), 치유(마 9:35, 8:1~16)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다.

넷째, 예수님은 복음을 충실하게 차근차근 전파하셨다. 이것은 현대에 복음을 빨리, 성급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대조되는 태도다.

다섯째, 예수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도록 촉구하셨다.

여섯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한 후 파송하심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우게 하셨다. 전도 실습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자들을 합당한 전도자로 키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훈련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셨다(마 28:19~20). 로버트 콜먼은 저서 《주님의 전도계획》에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콜먼은 “예수님의 관심은 대

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도 전에 훈련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전도 방법의 핵심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말씀으로 양육과 전도 훈련을 받고 파송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명령(가르침)을 따르도록 가르칠(제자훈련) 것이다. 그 후에는 그들을 통해 회심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며(딤후 2:2),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목상: 복음전도의 정의 및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관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이며, 그것을 자신의 전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조을희 선교사
(GMTC(한국선교훈련원) 교수)

온누리교회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3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373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전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은파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혜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제너럴 7층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유옥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인척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북한온누리**
-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 영북 북한군 명호면 민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 추수일 장로 (031)-767-2776
- 경기도 과천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만옥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alia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o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 **일본
연락처**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inbai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 **히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321-0012) Yaomasa Bldg 4F, 3-63 A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 **권영한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 중동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중국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JiLu Jiangdawuye (Dadigongsi)
단동
채기성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州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HONGGUO LIAONINGSHENG DANDONG-
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021HAO
대련
김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6路
3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rxian (526lu
3taishan zhongdianzhan)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漕马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Shi Minhangu CáoáoMa lù 1243hào
3lóu388shì

-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山东省青岛市崂山区香港东路69号
帆船山庄27号楼1楼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z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illegible]

- | ◆경배와찬양 | 목회자 |
|----------|-----------------------|
| 하스데만 박이호 | |
| ◆합동독사 | |
| ◆김도일 | 류세복 방선기 이기복 |
| 한정국 | |
| ◆부목사(파트) | |
| 김경도 | 김배울 김남석 |
| 김병철 | 김기범 김해미 |
| 김병태 | 김세환 김민현 |
| 배광호 | 김명준 신광호 |
| 시바트 | 박이훈 이진익 |
| 유승태 | 유지연 장미숙 |
| 이연리 | 최병만 최정현 |
| 채인미 | |
| ◆전교사(파트) | |
| 고원일 | 권영민 김근기 |
| 김도일 | 김승규 김세환 |
| 김승철 | 김영선 김진희 |
| 김승경 | 김영선 김진희 |
| 김정호 | 김지선 김태주 |
| 김정호 | 김지선 김태주 |
| 김태환 | 김한국 나지혜 |
| 노동준 | 노태규 민병호 |
| 노성만 | 박이호 박영우 |
| 박유진 | 박지수 박태훈 |
| 서영찬 | 빌 케셀링거 백승훈 |
| 신선애 | 서영환 송동주 |
| 신대중 | 송승호 신영아 |
| 여지휘 | 여한국 오명도 |
| 오준우 | 오대성 오영산 |
| 윤수진 | 유영환 유정호 |
| 윤대성 | 윤윤기 이경진 |
| 이민희 | 이시환 이상욱 |
| 이상은 | 이선영 이세영 |
| 이승호 | 이승기 이광민 |
| 이열렌 | 이용민 이웅희 |
| 이은희 | 이진희 이은정 |
| 이찬영 | 이태조 이희철 |
| 이항수 | 임광택 임종락 |
| 안지성 | 안종산 장광택 |
| 안재철 | 전윤성 장광택 |
| 정재호 | 전정호 주하늘 |
| 지수정 | 최귀영 최영철 |
| 최선재 | 최후관 최영철 |
| 한태웅 | 하루산 황인선 |
| 황유일 | khayavarsun Gan-Otgon |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 | | |
|-------------|-----|-----|---------|
| 세미 | 이수연 | 이혜경 | 임진순 |
| 제미 | 최병곤 | 최영은 | 정유식 |
| 제미 | 최희재 | 최혜경 | 최준희 |
| 흥흥식 | | | |
| ●만주자 | | | |
| 김기아 | 김성경 | 김선규 | |
| 김기현 | 김인숙 | 김연아 | 김경원 |
| 김기남 | 김민희 | 김은진 | 김인영 |
| 김지나 | 권민호 | 난국진 | 노성환 |
| 박사헌 | 박 숙 | 박영숙 | 박진용 |
| 위 원 | 신여운 | 송효빈 | 신은혜 |
| 안경선 | 안지영 | 안우경 | 안익희 |
| 윤지영 | 윤정희 | 윤향진 | 이광철 |
| 이내리 | 이예나 | 이애은 | 이예진 |
| 이혜전 | 정경미 | 정다혜 | 정희호 |
| 홍예은 | 조한나 | 최희미 | 최희정 |
| | 황보승 | 황대준 | 하윤선 |
| 해외 은누리교회 | | | |
| ●담당목사 | | | |
| 강부호 | 강은수 | 권영환 | 김관수 |
| 김태원 | 김태원 | 박진동 | 송영택 |
| 유원복 | 이민욱 | 이영선 | 우시하라 |
| 배기석 | 전영구 | 정재록 | 전오찬 |
| 하카마타 | 최형민 | 니야마 | 신치현 |
| ●미주OMA담당목사 | | | |
| 김지현 | 마크최 | 박막역 | 서재범 |
| 장정화 | 이성균 | 이경엽 | 이중재 |
| ●부목사 | | | |
| 강일영 | 강창호 | 김금섭 | |
| 김기홍 | 김도일 | 김명성 | 김민숙 |
| 김시연 | 김진우 | 김재형 | 김천우 |
| 김태환 | 노경호 | 박대남 | 박학환 |
| 박주영 | 박종훈 | 방지남 | 배성우 |
| 백인옥 | 변병섭 | 서성광 | 신영흠 |
| 유소미 | 염영기 | 유미영 | 유응우 |
| 정승철 | 이경호 | 이무상 | 이은택 |
| 이정주 | 이혁근 | 임봉순 | 오정택 |
| 정재호 | 전상헌 | 전홍준 | 정의환 |
| 정승철 | 정용환 | 조수정 | 조의환 |
| 전영국 | 최영진 | 최 유 | 최정표 |
| 홍호국 | 홍성룡 | 홍체만 | 홍정표 |
| Joseph Choe | | | Joe Lee |

- | | | | |
|----------------------|-------------|----------|-----|
| Michael Lee | | | |
| ◆전도사 | | | |
| 김성현 | 김성민 | 김성영 | 김성진 |
| 김현 | 김인혜 | 김영옥 | 김지현 |
| 김창식 | 김창식 | 김영희 | 구혜선 |
| 문하나 | 문하나 | 박미진 | 박유리 |
| 박지혜 | 박지혜 | 박형진 | 박유옥 |
| 서재옥 | 서재옥 | 설산정 | 손주은 |
| 신기원 | 신기원 | 설형진 | 안대진 |
| 이민혜 | 이민혜 | 이상수 | 이수연 |
| 이용기 | 이용기 | 이재경 | 이주영 |
| 임지훈 | 임지훈 | 윤성민 | 장성진 |
| 정현 | 정현 | 정은미 | 전희동 |
| 정진영 | 정진영 | 정은호 | 정성교 |
| 최지영 | 최지영 | 조 단 | 최정호 |
| 최진숙 | 최진숙 | 하보라 | 하정훈 |
| 코바야시 메구 | 코바야시 메구 | 한소은 | 한소은 |
| Christine Daniel Kim | Shin David | | |
| Kim JeanLee | Jeff Yoo | Jonathan | |
| Kim Rachel | Bach SamLee | Tommie | |
| jobvu | | | |
| ◆사역장로 | | | |
| 김경덕 | 김현중 | 남 영 | |
| 서인택 | 이정기 | 임병옥 | |
| ◆시무장로 | | | |
| 권덕수 | 김수호 | 김재동 | |
| 서현재 | 손창래 | 신중수 | |
| 우승호 | 이광철 | 이문호 | |
| 이준상 | 정만용 | 정현하 | |
| 조배 | 권다라 | 노리호 | |
| 홍관희 | | | |
| ◆명예장로 | | | |
| 염성국 | 윤부국 | | |
| 임종식 | | | |
| ◆협동장로 | | | |
| 김진민 | 김병훈 | 김연수 | |
| 김충근 | 윤광호 | 임한식 | |
| 최대환 | 최승호 | | |
| 조교병 | | | |
| ◆성가사 | | | |
| 김수성 | 김용재 | 김좌걸 | |
| 김진경 | 김현희 | 남보우 | |
| 박선영 | 박소영 | 박우람 | |
| 이지은 | 엄지영 | 여효필 | |
| 우아결 | 유기열 | 이정민 | |
| 이종현 | 정영진 | 정현경 | |
| 조요성 | 홍연철 | 황예란 | |

소천

11/12(목) 서초B 윤병주 안수집사 모친상 고 문엽숙
11/13(금) 서초C 김준홍 장로 모친상 고 조숙자
11/14(토) 고양은평 김미진 성도 부친상, 백승천 성도
빙부상 고 김일곤
11/15(주일) 양재 오애란 권사 모친상 고 노병애
11/16(월) 강남C 류지환 권사 부친상 고 류명돌

온누리
복지재단

공포하노!로남자중장기청소년년점 지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취업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후원과 자
원봉사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가전제품 및 소형 가구,
생필품 후원요청
내용: 취미 토소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주거용품 및 생필
품 후원 요청
문의: 이수진 팀장(031-360-182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무료취업 지원
내용: 고령자(40대이상) 일자리 알선을 통한 재취업 지원(경
비율, 요양보호사 등)
문의: 김수지 사회복지사(02-796-766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IT 체험존 봉사자 모집
내용: 퍼스널, 그룹웨어 인지훈런로봇, AI로봇, VR 체험존 활
동보조
문의: 송승현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노년다문화센터 전문재능 봉사자 모집
개요: 10시~18시, 내국 취미, 전문분야(법률, 금융, 심리, IT,
건강 등)
문의: 김지예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50플러스센터 글자기 대회 개최
내용: 센터의 건립 응원문구 또는 격려의 메시지 작성
문의: 비염영PM(02-579-5060)

재정

심일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김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오선교관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도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답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2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연,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H(학습 성취 유형진로 검사)
 특수 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차퍼즐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부모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광고

■ 결혼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3:00 양재 사랑을
윤기의, 김금애의 아들 윤순(온누리교회)
이정하, 안진호(온누리교회 안수집사)의 딸
이은영(온누리교회)

■ 광고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찬양팀 모집
모집: 건반, 베이스 각 1명
시간: 매 주일 10시 30분~13시
경력: 찬양팀 경험자 우대
문의: 김재혁 집사(010-3353-9150)

두란노서원 생명의살국제팀 영문 편집
모집: 영문접지 편집자(서방공동 본사)
업무: Living Life 편집 및 관리
근무: 계약직(15개월)
자격: 영문학 전공자, 장애인, 보훈대상자 우대
(면접 시 테스트)

안산 온누리M센터 베트남 주일예배 반주자 모집
모집: 키보드 1명
시간: 매 주일 오후 2시
문의: 이익식 팀장(010-3708-7926)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INTERNATIONAL NGO

더 멋진 세상

10TH ANNIVERSARY

10th

better world

ANNIVERSARY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며
희망을 심기 위해 출발한 NGO 더멋진세상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37개 국가에서 활발한 사역을 펼쳐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멋진세상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더멋진세상 사역국가 - 누적 37개국 / 현 22개국 진행 중

세네갈,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르완다, 우간다,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몽골,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요르단, 레바논, 멕시코, 니카라과, 온두라스, 몰도바, 우크라이나,
남수단, 탄자니아, 이집트, 아이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 태국, 라오스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 특별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 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하기



“더멋진세상” 카카오톡 상단 검색 후 채널 추가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유튜브 채널 구독

후원하기 우리은행 1005-702-002535 문의 02-2271-2246